

아름다움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서늘하고도 따스한 나무결
나무가 아름다운 꽃이 된다.

별처럼 빛나는
나전의 섬세한 도도함,
그 찬란함
작고 어여쁜 것들에 끌린다.





30
경상經床
Reading Table
19세기
가로 70 세로 33 높이 33
소나무





31

낙죽함 烙竹函

Chest

18세기

가로 43 세로 22.3 높이 22

대나무



32

교피함 鯨皮函

Box Covered with Shark Skin

18세기

가로 36.5 세로 17 높이 12.5

교피, 소나무





33

필갑 筆匣

Brush Case

19세기

가로 18 세로 12 높이 5.5

은행나무



34

비녀갑 簪匣

Hairpin Case

20세기

가로 13 세로 43.5 높이 8.5

오동나무



35

목갑 木匣

Box

19세기

가로 16.5 세로 16.5 높이 8

오동나무





36
퇴침 退枕
Wooden Pillow
19세기
가로 17 세로 12 높이 8
감나무



37
나전문진 螺鈿文鎮
Paperweight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초
가로 28.5 세로 5.2 높이 3
자개



38

나전소반 螺鈿小盤

Dining Table Inlaid with Mother-of-Pearl

19세기 말

지름 33 높이 22.5

자개, 팽나무



39

나전바둑판 螺鈿棋盤

Go Board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초

가로 45 세로 45 높이 30

자개, 대모, 교피, 동사





40

나전함 螺鈿函

Box Inlaid with Mother-of-Pearl

19세기 말

가로 45 세로 11 높이 13.5

자개



41

나전의상상자 螺鈿衣裳箱子

Clothes Box Inlaid with Mother-of-Pearl

19세기

가로 70 세로 40 높이 19

자개, 동사





42

나전함 螺鈿函

Box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초

가로 49 세로 24.4 높이 28.8

자개





43

나전경대 螺鈿鏡臺

Dressing Box Inlaid with Mother-of-Pearl

19세기

가로 22.5 세로 30 높이 19

자개





44

나전경대 螺鈿鏡臺

Dressing Box Inlaid with Mother-of-Pearl

19세기 말

가로 22.5 세로 29.5 높이 23

자개





45

주칠경대 朱漆鏡臺

Lacquered Dressing Box

20세기 초

가로 20.5 세로 20 높이 26.5



46

주칠상자 朱漆箱子

Lacquered Box

20세기 초

가로 31.5 세로 22 높이 9



47
주칠빗집 朱漆櫛函
Lacquered Comb Box
19세기 말~20세기 초
가로 19.5 세로 30 높이 20



48
주칠함 朱漆函
Lacquered Box
20세기 초
가로 33 세로 20.5 높이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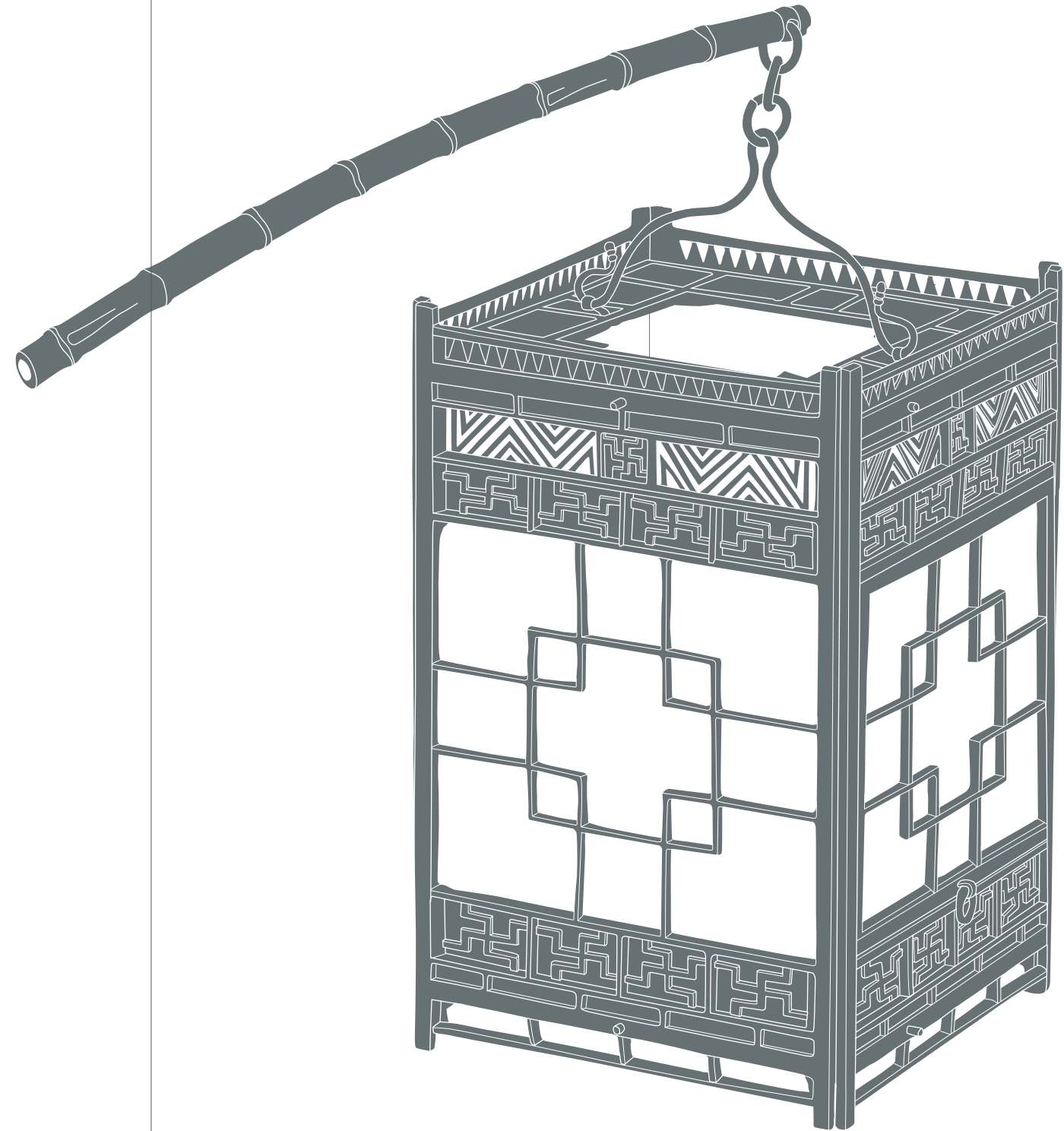


따스함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랜 성숙의 푸르른 시간을 지나
목재, 종이, 땀감이 된다.

나무는 묵묵히 우리의 삶을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준다.





49

제등 提燈

Lantern

19세기 초

가로 15.5 세로 15 높이 24

종이, 대나무



50

제등 提燈

Lantern

19세기

가로 34.5 세로 34.5 높이 26.5

피나무, 대나무





51

촛대 燭臺

Candlestick

19세기

거북받침폭 9 거북받침길이 13 총 높이 51

소나무



52
빗장
Latch

빗장길이 23 거북장식 길이 11



53
촛대 燭臺
Candlestick

좌 받침너비 21.5 받침길이 29 총높이 42
우 받침너비 21.5 받침길이 29 총높이 42



54
 소라패 표주박 螺貝瓢子
 Dipper with Turban Shell
 19세기
 가로 19 세로 10.5 높이 6
 소라패, 나무, 교피



55
 표주박 瓢子
 Gourd-shaped Dippers
 19~20세기
 나무, 종이, 야자열매





56

서류함 書類函

Document Box

18세기

가로 40 세로 27.5 높이 9

종이, 나무





57
팔각지장함 八角紙裝函
 Paper-coated Box
 20세기
 너비 31.5 높이 19.2
 종이, 나무



58
지장함 紙裝函
 Paper-coated Box
 19세기 말~20세기 초
 가로 14 세로 10.5 높이 11
 종이, 나무



59
지함 紙函
 Paper Box
 가로 34 세로 21 높이 13.5
 종이



60

색실상자

Thread Box

가로 30.7 세로 19 높이 16.7

종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화풍함

질박한 나무의 표면에
여러 겹 옷칠을 올리고
자개로 화려함을 더한다.

꽃이 피어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사슴이 뛰어다니는 숲이
은하수가 되어 반짝인다.





61

나전문갑 螺鈿文匣

Stationery Chest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말

가로 82.5 세로 34 높이 38

자개

4개 1조



62

나전경대 螺鈿鏡臺

Dressing Box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말

가로 19 세로 35.5 높이 25.5

자개



63

나전이층농 螺鈿二層籠

Clothes Chest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말

가로 43.5 세로 36 높이 74

자개

2개 1조



64

나전이층농 螺鈿二層籠

Clothes Chest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말

가로 61 세로 38 높이 89

자개

2개 1조



65

나전삼층농 螺鈿三層籠

Clothes Chest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말

가로 100 세로 52 높이 200

자개



유물목록

전통 목가구 세부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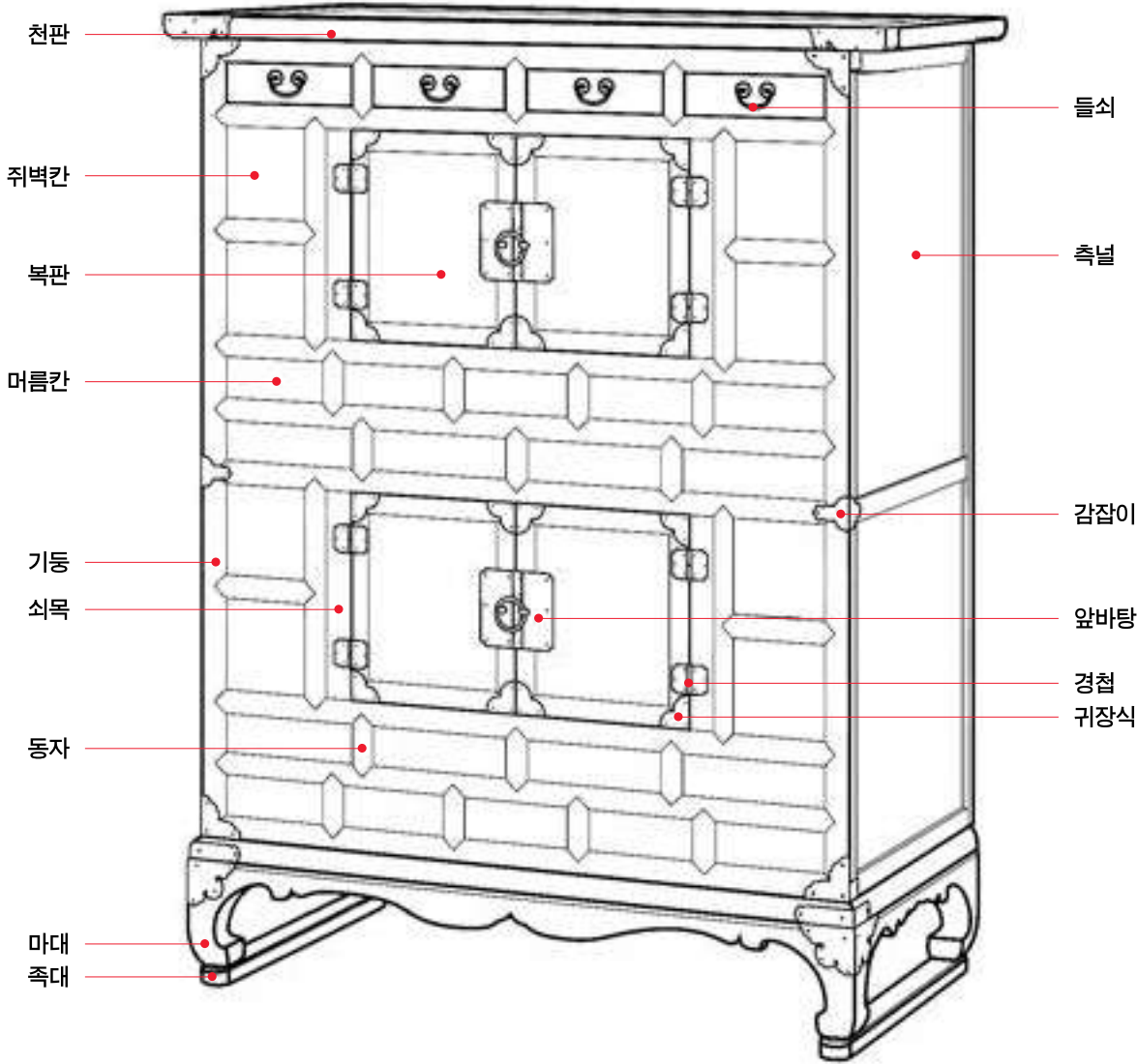
전통 목가구 짜임종류

유물설명

전시장 전경

로비 전시

작가 소개



출처: 『목가구-민속유물이해 I』, 국립민속박물관, 대원사

맞짜임		
연귀짜임		
턱짜임		
장부짜임		
사개짜임		
주먹장사개짜임		

출처: 『목가구-민속유물이해 I』, 국립민속박물관, 대원사

	01 책장 冊櫥 Book Chest 19세기 가로 70 세로 44.5 높이 136 오동나무 참죽나무	올곧은 나무결이 드러나는 검은 색과 간결한 모습에서 선비의 기백이 느껴지는 3층 책장이다. 전면 문판은 통판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천판은 각재를 맞짜임으로 사각형 결합 후 판재를 톱짜임으로 결합한 경기장京畿櫥 형태의 족두리 천판이다. 기둥과 측널의 쇠목은 연귀짜임이고 다리는 일체형에 족대를 대었다. 사각형 앞바탕에 쥐꼬리형 불박이 자물쇠와 6개의 원형 경첩으로 장식을 최소화하여 절제미가 돋보인다.
	02 책장 冊櫥 Book Chest 18세기 말 가로 94 세로 43 높이 97 소나무 모과나무	천판이 몸통보다 약간 넓은 판형 구조로 단순한 형태의 2층 책장이다. 천판과 측널, 층널은 맞짜임 후 대못으로 고정하였다. 천판은 아랫부분을 둥글게 깎아 둔해 보이는 것을 방지하였다. 전면이 문판으로만 구성되므로 모든 문판은 문변자를 결합하여 뒤틀어짐을 방지하였다. 머름칸, 쥐벽칸이 없는 구조라 입구가 넓어 책을 다량 수납하기에 적합하다. 판각에 박쥐형 풍혈을 장식하였다. 전면에는 입술이 있는 원형 앞바탕을 부착하고 제비초리형 경첩을 12개 부착하여 문을 단단히 고정하였다. 사각형 감잡이를 각 층널과 측널 사이에 부착하였다. 절제된 장식효과에 효율성을 높인 사랑방용 책장이다.
	03 약장 藥櫥 Medicine Chest 18세기 말~19세기 초 가로 57 세로 22 높이 86.5 오동나무	여단이문 안쪽으로 서랍이 설치된 가께수리 약장으로 가정에서 상비용으로 약재를 보관하는데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선비는 간단한 병에 대한 처방을 배워 가족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이러한 약장을 갖추고 있었다. 천판과 측널이 주먹장사개짜임, 밑판과 측널은 사개짜임이고 서랍칸은 연귀짜임 후 대못으로 고정하였다. 문판은 각 변에 문변자를 결합하여 뒤틀림을 방지하였다. 여의두형 입술이 달린 무쇠 앞바탕과 약과형 경첩을 6개 부착하였다. 앞바탕의 사각형 고리에 조각이 섬세하다. 여단이문을 열면 원형 당김쇠가 부착된 50개의 서랍이 있는데 각 서랍은 칸을 막아 두가지 약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맨 아래칸 서랍은 다른 칸에 비해 높이가 높아서 다양한 약재나 기구를 보관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04 서탁 書卓 Table 17세기 가로 152 세로 24 높이 52 소나무 먹감나무	일반적인 서탁에 비해 천판의 길이가 길고 폭이 좁아 독특한 비례미를 보인다. 천판과 측널 간 장부짜임을 하고 연봉형 一자 감잡이로 보강하였다. 천판 아래에는 3개의 서랍이 있고 아래에 층널을 두어 책이나 기물을 수납할 수 있게 하였다. 측면의 다리는 판각이다. 측널과 층널은 연귀장부짜임 후 연봉형 一자 감잡이로 보강하였다. 서랍 판재는 먹감나무로 나무의 아름다운 결을 돋보이도록 간결한 원형 당김쇠를 달았다. 특정한 위치에 맞추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05 서안 書案 Writing Table 18세기 가로 64 세로 30 높이 32 오동나무	천판 아래 여단이문이 달린 서안이다. 천판과 측널은 맞짜임 구조 후 대못으로 보강하고 박쥐풍혈이 있는 다리는 구족형 판각으로 안정감이 뛰어나다. 여단이문을 열면 큰 서랍 1개, 작은 서랍 2개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판은 통판에 여의두문이 음각되어 있고 문변자가 좌우로만 결합되어 있다. 장식은 무쇠이며 보상화형 앞바탕에 자물쇠가 달려있고 원형 경첩이 부착되어 있다. 이 유물은 오동나무 표면을 불로 그슬리거나 인두로 지진 후 벗짚으로 문질러 나뭇결을 살리는 낙동법烙桐法을 사용한 판재로 제작하였다.
	06 서안 書案 Writing Table 19세기 말 ~ 20세기 초 가로 83.5 세로 26 높이 34.5 소나무	천판과 측널을 사개짜임으로 연결하고 아래에 선반용도의 층널을 장부짜임으로 추가한 간결한 구조이다. 천판과 측널 연결부위 가장자리에 짜임을 보강하고 장식 효과를 위하여 괴불쪽을 붙였다. 짜임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고 다리 아래 부분도 안쪽으로 둥글게 깎아냈다.
	07 연상 硯床 Inkstone Box 20세기 가로 42.3 세로 27.5 높이 28 모과나무	단아하고 경쾌한 3단 연상이다. 연귀짜임 구조이며 보강을 위한 별도의 장식은 없다. 상단은 좌우 두 칸으로 나뉘어져 판형 덮개로 덮는다. 덮개는 뒤틀림을 방지하여 사방에 변자를 결합하고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뚜껑 내부에 턱을 부착하였다. 천도형 당김쇠가 달린 가운데 서랍단은 상단과 하단에 비하여 몸통을 조금 작게 제작하였다. 하단은 기둥 아래 밑판을 대서 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바닥 네 귀퉁이에 다리를 부착하였다.

 08 연상硯床 Inkstone Box 19세기 가로 38 세로 19.3 높이 20.3 오동나무 소나무	벼루를 넣어두었던 안정감과 균형미가 뛰어난 연상이다. 천판과 측널은 연귀짜임 이고 천판에 두루마리 개판을 좁게 붙인 형태이다. 상단은 분리형 상자로 두 공간 으로 구분되며 하단은 서랍을 두어 기물을 수납할 수 있다. 전면에 원형 앞바탕, 뒷면에 원형 경첩 2개, 서랍에는 국화형 바탕에 원형 당김쇠가 부착되어 여닫기 편하게 되어있다. 다리는 박쥐형 풍혈로 장식한 마대형으로 몸통에 비해 약간 큰 편이다. 바닥에 乾坤 목서가 있다.
--	---

 09 함函 Box 18세기 가로 57.5 세로 28.4 높이 30.8 피나무	연귀짜임에 국수형 감잡이로 보강한 의젓한 모습의 사각함이다. 뚜껑을 열면 안쪽 에 뚜껑받이가 있다. 감잡이 고정은 목재 안쪽으로 처리하여 깔끔한 외관을 가지 고 있다. 원형 앞바탕과 원형 경첩이 있으며, 활형 들쇠를 앞뒤로 달아 간결하면서도 실용성을 갖추었다.
---	--

 10 고비考備 Letter Rack 19세기 너비 17.7 높이 42.4 대나무	고비는 방이나 마루의 벽에 걸어 놓고 편지나 종이를 말아 꽂아두는 벽걸이용 가 구이다. 대나무로 사각형 골조를 만들고 살을 세로로 덧대어 3단으로 끼울 수 있도록 제작 하였다. 전면에는 가로대를 위 아래로 세우고 사이에 7개의 작은 기둥을 세운 4층 의 난간 형태로 만들었다. 맨 위의 가로대는 山자형태로 깎아내고 맨 아랫단은 밑 면을 둥글게 휘어서 고정하여 대나무의 곧은 선과 부드럽게 휘는 성질을 모두 보여 주는 멋스러운 구조이다. 모든 연결부위는 장부짜임으로 하고 대못으로 보강하였 다. 사각형 골조 중 양쪽 세로 기둥 윗부분에 구멍을 내어 벽에 고정하였다. 공간을 분할하고 정리한 솜씨가 경쾌한 느낌을 준다.
---	--

 11 붓통筆筒 Writing Brush Stand 19세기 초 입지름 16.5 높이 16 대나무	대나무를 반으로 쪼갠 후 화형花形으로 이어 붙여 만든 붓통이다. 일곱 쪽의 대를 이어 붙이고 밑판은 1cm 두께로 몸통보다 크게 만들어 붙였다. 이어 붙인 안쪽에는 한지띠로 덧대 갈라짐을 방지하였다. 겉쪽의 이음새 사이에는 얇은 심을 대서 갈라짐 방지와 장식효과를 더했다. 문양을 새겨 문양 외 부분을 긁어내는 박지기 법剝地技法으로 매화, 대, 석류, 소나무, 복숭아, 연꽃, 국화 등 총 7개의 문양을 표 현하고 전체적으로 옷칠을 하여 자연스러운 장식효과를 높였다.
---	--

 12 족두리함簇頭里函 Coronet Box 19세기 너비 20 높이 12.4 오동나무	나무결이 두드러지는 팔각 족두리함으로 단순한 구조의 균제미가 뛰어나다. 연귀짜임이며 별도의 보강용 감잡이는 없고 약과형 앞바탕과 약과형 경첩 2개만 부착되어 있다.
---	---

 13 팔각함八角函 Box 19세기 너비 23.3 높이 24.8 오동나무	다른 함에 비해 높이가 높은 팔각함이다. 연귀짜임에 별도의 감잡이는 제외하고 사각형 앞바탕에 물고기형 자물쇠가 달려 있다. 뚜껑과 양 옆 측면에 원형고리가 달려있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

 14 팔각함八角函 Box 20세기 초 가로 35 세로 26.5 높이 21 오동나무	연귀짜임에 뚜껑은 대못으로 고정하였다. 뚜껑에 가장자리를 살짝 턱지게 깎아낸 것은 일본식 목가구 기법이다. 원형 앞바탕 아래에 들쇠를 달고, 뒷면에는 원형 경 첩을 2개 달았다. 내부에는 뚜껑받이가 있고 밑면에는 반구형半球形 다리 4개가 있다. 과도한 장식 없이 아름다운 나뭇결이 돋보인다.
---	---

 15 인궤印櫃 Seal Box 19세기 말 가로 20 세로 20 높이 33 종이 나무	인궤印櫃, 인함印函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나라의 국새나 관청의 관인부터 개인 의 것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인장印章을 보관하는 함이다. 이 유물은 나무로 함을 만들고 도침한 종이를 바른 지장 인궤이다. 뚜껑은 사각형 으로 틀을 만들고 삼각형 판재를 이어 삼각뿔 형태로 제작하였다. 넓은 사각형 앞 바탕에 印信을 돌을무늬로 표현하고 일반적인 감잡이가 아니라 먼 귀싸개 장식을 각 모서리마다 길게 부착한 것을 보아 관官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뚜 껑의 모든 이음새에 꽃모양 먼 귀싸개 장식을 좁고 길게 부착하여 봄날의 조팝꽃 을 연상시킨다. 중앙에는 원형고리를 달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측면에는 화형花形 바탕 복조리형 들쇠를 달고, 밑면에는 반구형半球形 다리를 부착하였다.
---	---

16 인궤 印櫃 Seal Box 18세기 말~19세기 초 가로 17 세로 17 높이 19.5 소나무	측널은 연귀짜임, 상판과 바닥판은 맞짜임 후 모든 연결부위에 고추잎형 감잡이로 보강한 인궤이다. 통판으로 뚜껑 천판을 만들고 볼록하게 다듬은 뒤 대각선 모양으로 길게 장식을 부착하여 장식효과를 더하고 안쪽을 삼각뿔 형태로 깎아냈다. 뚜껑을 열면 뚜껑받이가 있고 뚜껑 내부에는 명문이 있다. 전면에는 약과형 앞바탕, 뚜껑 중앙에는 국화꽃 화형花形바탕에 울각粟刻한 손잡이, 좌우 측면에는 화형花形바탕 복조리형 들쇠를 부착하였다.
--	--

17 책장 冊櫃 Book Chest 20세기 가로 113.5 세로 49.5 높이 112 소나무	선반이 있는 견고한 2층 책장이다. 천판은 두루마리 개판으로 되어 있고 여단이 문을 열면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판, 층널과 측널은 맞짜임 후 감잡이로 보강하고 문판은 뒤틀림 방지를 위하여 네 변에 각재를 보강 후 화형花形 귀장식을 부착하였다. 다리는 기둥에서 곧게 이어져 족대를 끼웠다. 머름칸은 낮게 최소화하고 쥐벽칸을 넓게 구성하였다. 두루마리 개판에는 두루마리 귀장식을 붙이고 아래에는 화형 귀받침을 대어 처짐을 방지하였다. 뒷널에도 가로 두 개, 세로 한 개의 보강재를 대고 국수형 十자 감잡이를 부착하였다. 약과형 앞바탕에 자물쇠를 달고 약과형 경첩 6개를 부착하였다. 머름칸, 쥐벽칸, 측널 간에는 국수형 새발 감잡이를 부착하고 여단이문이 달린 단의 네 귀퉁이와 아래 선반 귀퉁이에 문판과 같은 화형花形 귀장식을 부착하였다.
---	---

18 머릿장 櫥 Chest 19세기 가로 78 세로 38 높이 52 잣나무	천판에 두루마기 개판을 부착한 3단 머리장이다. 위에 2단은 5개의 서랍, 아래단은 여단이장으로 면의 분할이 아름답게 구성되었다. 2단의 서랍은 아래 몸체보다 3cm 정도 안쪽으로 들어 넣어 아랫단과 단차를 둔 것이 구성의 특징이다. 전면으로 보이는 양쪽의 기둥과 서랍들 사이의 동자와 쇠목에 2줄의 쇠시리를 넣어 장식효과를 더하였다. 전면 여단이문 바깥쪽 쥐벽칸에는 여의두문如意頭紋을 음각으로 새기고 두루마리 개판 아래에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귀받침을 부착하고 만초蔓草를 음각으로 새겼다. 문판에는 보상화형 앞바탕과 초엽형草葉形 경첩을, 여단이문이 맞닿는 모서리에는 화형花形 귀장식을 부착하였다. 5개의 서랍 전면에는 국화형바탕 활형 들쇠를, 두루마리 개판에도 두루마리 귀장식을 부착하였다. 각 쇠목과 동자는 보강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연봉형 새발 감잡이를 달아주어 섬세한 미와 견실함을 확보하였다. 다리는 박쥐형 풍혈이 다부진 느낌을 주는 마대형으로 역시 연봉형 감잡이를 달아주어 통일감을 주었다. 마대와 머름칸, 마대와 측판 간에도 연봉형 감잡이를 부착하여 마대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	---

19 책장 冊櫃 Book Chest 18세기 가로 108 세로 43 높이 112 소나무	두루마리개판이 천판에 부착되어 있는 2층 책장이다. 각재와 판재는 맞짜임 후 국수형 감잡이로 고정하고 판재를 턱짜임으로 끼워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확보하였다. 문판이 통판으로 제작되었고 전면의 쇠목과 동자가 오목한 형태로 된 것이 제작 연대를 가늠하게 하는 귀한 장이다. 맨 윗단과 맨 아랫단은 서랍, 몸통은 2층으로 구성하였다. 문판과 쥐벽칸에는 여의두문如意頭紋이, 서랍칸과 머름칸은 안상문眼象紋이 음각으로 장식되었다. 약과형 앞바탕에 울각粟刻한 손잡이와 칠보七寶장식 문고리를 붙였고 약과형 경첩, 국수형 감잡이, 국화형 바탕 활형 들쇠, 국화형 바탕 원형 당김쇠를 부착하였다. 기둥에서 연장된 호족형號足形 다리에는 족대를 끼우고 만초문蔓草紋을 조각하고 죽절竹節장식을 덧대었다.
---	--

20 문갑 文匣 Stationery Chest 18세기 말~19세기 초 가로 117 세로 39 높이 59.5 소나무 느티나무	문갑은 보통 2개가 1조組를 이루는데 단문갑은 쌍문갑에 비해 길이가 길거나, 높이가 높고 서랍, 여단이장, 개구부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두루마리 개판이 부착된 단문갑이다. 정면 중앙에 가계수리 형식의 여단이장, 상단 양 끝에 여단이문, 중앙 맨 윗단과 아랫단에 너비가 넓은 서랍, 그 외 작은 서랍과 두껍단이문, 개구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천판과 측널은 맞짜임 후 대못으로 보강하고, 측널과 층널은 연귀장부짜임으로 제작되었다. 다리는 기둥에서 짝 짝은 일자형 다리로 측면에는 풍혈이 장식되어 있다. 중앙에 부착된 투각透刻 팔괘문八卦紋 앞바탕이 독특하고 각 여단이문에는 제비초리형 경첩을 달았다. 각 칸에 보상화형 앞바탕과 망두형 귀장식과 각재들의 연결부위에 망두형 감잡이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중앙 여단이문을 열면 나무결이 아름다운 다양한 크기의 서랍이 6개 있는데 원형 당김쇠와 활형 들쇠가 달려있어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랍장에는 보상화형 은혈자물쇠와 투각 卍자형 들쇠를 달았다. 두껍단이문에는 천도형 당김쇠가 부착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장식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	---



21
가깨수리
Safe
20세기 초
가로 68.5
세로 41
높이 64
소나무

가깨수리는 안방과 사랑방에서 중요한 기물이나 서류들을 보관하던 가구이다. 여단이문 안에 여러 개의 서랍으로 구성된 일종의 금고로 약장으로도 사용하였다. 중국의 천안주장감千眼廚粧嵌 또는 천안주千眼廚라고 부르는 소형장에서 유래되었고 18세기 이후 문헌에는 각비슈리, 각기소리各基所里라고 표현하였다. 일본에서는 ‘かけすずり 懸硯’라 하여 일제강점기에 ‘가깨수리’라는 명칭으로 고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 유물은 천판과 측널, 층널은 주먹장사개짜임으로 제작하고 문판은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문변자를 결합하였다. 다리는 박쥐풍혈로 아름답게 장식한 마대형으로 몸통보다 약간 큰 편이다. 문판 전체 길이만큼 길게 입술이 달린 박쥐문이 투각된 보상화형 은혈자물쇠를 붙이고 문판 4귀통이에는 화형 귀장식과 제비초리형 경첩을 달았다. 앞바탕에는 2개의 원형 광두정과 2개의 들쇠를 세로로 세워 달았으며 몸통 양 옆에 화형 들쇠와 그 밑에 화형 광두정을 달았고 귀통이에도 화형 귀싸개를 부착하였다.

여단이문을 열면 내부에 작은 서랍 3개, 중간 서랍 2개, 큰 서랍 1개가 있고 각 서랍마다 화형바탕 활형 들쇠를 달았다. 뒷널과 측판는 망두형 감잡이를 부착하여 전체적으로 견고함과 화려함을 더하였다. 화려한 금속장식이 아름다운 가깨수리함이다.



22
문갑文匣
Stationery Chest
18세기 말~19세기 초
가로 108
세로 33.5
높이46
감나무
먹감나무

문갑은 문구갑文具匣의 준말로 문서나 문방용품을 보관하는 높이가 낮은 단층 가구이다. 좌식 생활에 적합하게 앉은 채 사용하기에 편리한 높이로 되어 있다. 안방과 사랑방에서 모두 사용하였으며 천판 위에 필통, 연적硯滴, 수석水石, 난분蘭盆, 경대 등을 올려놓아 진열대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감나무 골재에 앞판은 결이 아름다운 먹감나무를 사용한 두껍단이형 문갑이다. 윗단은 서랍, 아랫단은 두껍단이문 안에 다양한 크기의 서랍과 개구부로 수납공간을 구성하였다.

천판과 측널은 주먹장사개짜임 후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은 장인의 솜씨가 돋보인다. 문판은 뒤틀림 방지를 위하여 문변자를 결합한 형태이다. 일체형 다리로 본체와 다리 사이에 삼각형 귀받침을 부착하고 밑판 중앙에 보조다리를 부착하였다. 국화형 바탕에 천도형天桃形 당김쇠가 달려있는 서랍과 화형花形 장식이 달린 5개의 두껍단이문을 두었는데 장식을 작게 만들어 천연의 나무문양을 해치지 않는다. 오른쪽에서 두번째 문에 은혈자물쇠를 달아 이 문을 열어서 빼내야 다른 문도 빠지게 되어 있다. 내부에는 독특한 면분할로 다양한 크기의 서랍이 있고 원형 당김쇠와 활형 들쇠를 달아 실용성을 갖추었다.



23
죽장책장竹裝冊櫥
Book Chest
20세기
가로 83
세로 42.5
높이 161
대나무

대나무를 붙여 장식한 4층 책장인데 본래 쌍으로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2cm 내외로 대나무를 쪼개 사각형문으로 배치하여 못으로 고정하였다. 전면의 문판과 측널의 각 층마다 중앙에 짙은 색의 대나무 쪽으로 쌍희龔자를 도안하여 깊이감을 주었다. 장식은 모두 박쥐형으로 통일하여 박쥐형 은혈자물쇠, 박쥐형 귀장식 박쥐형 경첩을 부착하였다. 대나무 표면의 윤기와 광택이 깔끔하여 정성껏 관리하며 사용했던 장으로 추정된다.



24
죽장책장竹裝冊櫥
Book Chest
18세기 말
가로 86.5
세로 44.5
높이 84
대나무
소나무

대나무로 장식한 2단 책장이다. 천판에 두루마리 개판을 부착하고 기둥에서 곧게 뻗은 호족형號足形 다리에는 만초蔓草 조각과 죽절竹節을 덧붙이고 족대를 끼웠다. 문판은 2단이고 각재를 연귀짜임으로 대어 보강하여 틀어짐을 염려한 장인의 솜씨가 돋보인다. 상단은 사각형 배치로 붙이고, 하단은 세로 배치로 대나무쪽을 각재에 끼워 고정시켰다. 책장의 하단은 상단에 비해 높이를 높게 하여 변화를 주었다.

울각栗刻한 손잡이가 달린 좁은 여의두형如意頭形 앞바탕과 여의두형 경첩을 달고 문판의 4귀통이에 화형花形 귀장식을 부착하였다. 두루마리 개판에는 두루마리 귀장식을 부착하였다. 문판의 가로대에는 화형바탕 원형 당김쇠를 양쪽에 붙이고 문판의 외각 몸체에 각재를 추가로 두른 뒤 문판과 같은 화형 귀장식을 부착하였다. 각 동자를 연귀짜임과 맞짜임으로 붙이고 국화형 감잡이, 망두형 감잡이와 망두형 새발감잡이로 보강하였다. 여단이문을 열면 층널 앞쪽에 각재로 턱을 만들어 2층의 기물이 밖으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25
화초장花草櫥
Wardrobe
20세기
가로 104
세로 53
높이 154
소나무

경기장京畿櫥 형식의 화초장이다. 원래 화초장은 유리에 그림을 그리고 뒤에 색종이를 댄 것을 판재로 사용한 옷장을 말하는데, 판재에 그림을 그린 것까지 화초장으로 부른다.

안료를 사용하여 문판에는 쌍희龔자를, 머름칸과 귀벽칸에도 국화, 영지, 풀꽃 등을 가득 차게 그렸으나 지나치지 않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천판은 아래쪽을 살짝 둥글게 깎아 둔해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연귀짜임, 장부짜임으로 판재와 각재를 연결하였다. 원형 앞바탕과 원형 경첩 외의 장식은 부착하지 않았다. 기둥에서 쪽 이어진 일자형 다리에는 독특한 형상의 풍혈을 대었다.

26 주칠이층롱 朱漆二層籠 Lacquered Clothes Chest 19세기 말~20세기 초 가로 83 세로 43 높이 122	농은 제작방식에 따라 판재의 결합으로만 제작한 판형 농과 네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판재를 끼워 넣어 제작한 기둥형 농이 있다. 이 유물은 판재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층농으로 전체적으로 주칠이 되어있다. 천판과 측널은 장부사개짜임으로 제작하였다. 판재 위에 종이를 배접하고 그 위에 주칠을 하였다. 전면은 외곽에 1cm 정도 흑칠을 하여 변화를 주었다. 입술이 달린 나비형 앞바탕에 원형 불박이 자물쇠가 달리고, 여단이문에도 나비형 경첩을 달아주어 통일감을 준다. 측널에는 좌우로 활형 들쇠와 광두정이 달려있는데 하단 우측은 소실되었다.
---	--

27 나전이층롱 螺鈿二層籠 Clothes Chest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초 가로 80.4 세로 38 높이 112 자개	나전螺鈿은 조개껍질을 가공하여 자개를 만들고 자개로 무늬를 만들어 칠면漆面에 장식하는 칠기장식 기법이다. 넓은 의미로는 다양한 종류의 조개나 대모玳瑁, 상아象牙, 호박琥珀 등의 보석류를 칠기에 새겨 넣어서 장식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귀갑문龜甲紋이 바탕을 채운 의젓한 나전이층농이다. 천판에는 산수화山水畵를, 전면에는 귀갑문과 화조문花鳥紋, 측판에는 화조어문花鳥魚紋, 마대에는 보문寶紋을 시문하였다. 문짝 가장자리와 전면 가장자리에 각각 아자문亞字紋을 끊임질로 두르고 문판 안쪽에는 주름질과 모조법毛彫法으로 패랭이꽃, 국화, 목련, 모란과 공작 네 쌍을 시문하고, 문판 바깥쪽에는 귀갑문을 가득 채웠다. 천판과 측널은 연귀짜임에 망두형 감잡이로 연결 부위를 보강하였다. 전면에는 보상화형 앞바탕에 제비꼬리형 경첩을 달고 문판 모서리에는 화형花形 귀장식을 달았다. 여단이문 아래에 활형 들쇠 배꼽장식을 달고 뒷널에도 들쇠를 부착하였다. 아래쪽 마대에도 화형 귀싸개를 붙이고 족대를 끼워 정성을 기울였다. 여단이 문 안 쪽으로 문판보다 좁은 미단이 판을 두어 옷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각 층 천판에 산수문이 시문되어 있고 여분의 마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단층농으로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	---

28 나전이층롱 螺鈿二層籠 Clothes Chest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초 가로 79 세로 42 높이 156 자개 대모	상단과 하단을 통틀어 농 전체에 봉황鳳凰 한 쌍과 현무玄武 한 쌍을 나전과 대모로 화려하게 표현한 이층농이다. 상단은 여의주를 중심으로 봉황을 좌우로 배치하였다. 여백에는 운문과 봉황의 긴 꼬리가 현란하게 가득 차있다. 하단은 자개와 대모로 나타낸 현무 2마리가 대칭으로 있고 그 아래로는 바다와 연화, 영가, 괴석이 표현되어 범상치 않은 모습이다. 하단은 족대가 달린 마대형 다리와 일체형이라 안정감이 확보되었다. 봉황과 현무가 원형의 앞바탕을 구슬처럼 잡도록 표현한 장인의 재치가 돋보인다. 측면에는 1층과 2층을 이어서 여의주를 향한 봉황이 한 마리씩 표현되어 있는데 봉황의 꼬리가 2개 층 전체에 넓게 뻗어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박쥐형 풍혈이 있는 다리에도 자개로 화문을 넣었다.
--	--

29 나전의걸이장 螺鈿衣櫥 Wardrobe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초 가로 90 세로 50.5 높이 188 자개	상단에 옷을 걸 수 있는 햇대가 있고 하단에는 여단이문 안에 옷과 그 외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게 제작한 나전의걸이장이다. 천판 아래 4개의 서랍과 개구부 위쪽으로 3개의 서랍이 있으며 개구부에도 물건을 수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마대형 다리가 일체형으로 있고 족대를 끼웠다. 천판의 모서리부터 모든 쇠목, 동자, 기둥에 뽕뽕이 당초문, 화문, 나비문, 박쥐문, 보문, 소화문 등을 주름질로 시문하였다. 상단 문판에는 사각형 테두리 안에 목련 그루씩 여백을 주고 배치하였고 목련 아래로는 예의엄치禮義廉恥, 효제충신孝悌忠信 글자를 주름질로 표현하였다. 하단 문판에는 사각형 테두리 안으로 포도나무 아래 활짝 핀 국화와 사슴 한 쌍이 주름질과 모조법毛彫法으로 좌우에 표현되었다. 측면은 4단으로 나뉘어 산수화를 끊임질로 시문하였다. 사각형앞바탕에는 쥐꼬리형 불박이자물쇠가 달려있고 여단이문에는 사각형 경첩이 달려있다. 천판 네 귀퉁이와 다리에는 사각형 감잡이가 있다. 각 서랍에는 박쥐형 들쇠가 달려있고, 개구부 위의 서랍에는 화형花形 은혈자물쇠를 부착하였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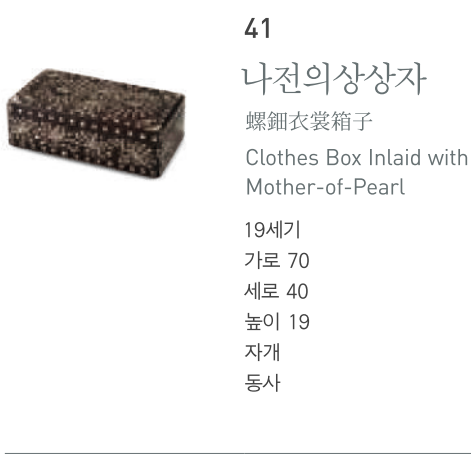
30 경상經床 Reading Table 19세기 가로 70 세로 33 높이 33 소나무	천판 양 끝에 두루마리개판이 부착되어 있는 아름다운 경상이다. 경상은 주로 사찰에서 두루마리로 된 불경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였다. 천판과 측널은 장부짜임 후 국수형 감잡이로 보강하였다. 천판 아래 서랍은 선뽕침대가 아래에 부착되어 밑으로 제쳐지는 형태이다. 서랍 앞면은 2줄의 쇠시리가 있는 각재를 붙여 2단 4칸을 만들고 상단에는 화형문火刑紋, 하단에는 안상문眼象紋을 깊게 음각하였다. 국화형 +자감잡이, 국화형 새발감잡이, 국수형 감잡이를 부착하고 뽕침대를 중심으로 양 옆에 원형 고리 2개, 서랍 양 옆 가장자리에 원형 광두정 2개를 부착하였다. 측면에도 쇠시리가 있는 각재를 +자로 붙이고 그 위에 국화형 +자 감잡이를 부착하여 견고함과 장식성을 확보하였다. 두루마기 개판 아래에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귀받침도 정교한 조각과 투각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기둥에 이어진 다리에는 만초蔓草 조각과 죽절竹節 장식을 덧대고 족대에 끼웠다.
---	---

31 낙죽합烙竹函 Chest 18세기 가로 43 세로 22.3 높이 22 대나무	색과 문양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낙죽합이다. 인두로 지져서 무늬를 나타내는 낙죽烙竹기법으로 포도와 당초를 표현한 대나무를 전체 면에 붙였다. 테두리와 넓은 면의 중앙은 방향을 다르게 대나무를 붙여서 변화를 주었다. 쪼이기법으로 꽃과 복숭화, 영지 등을 표현한 약과형 앞바탕과 약과형 경첩을 부착하였다. 밑면에는 반구형 다리를 부착하였다. 금구장식에서 보이는 세공 등을 통해 연대가 높은 유물임을 알 수 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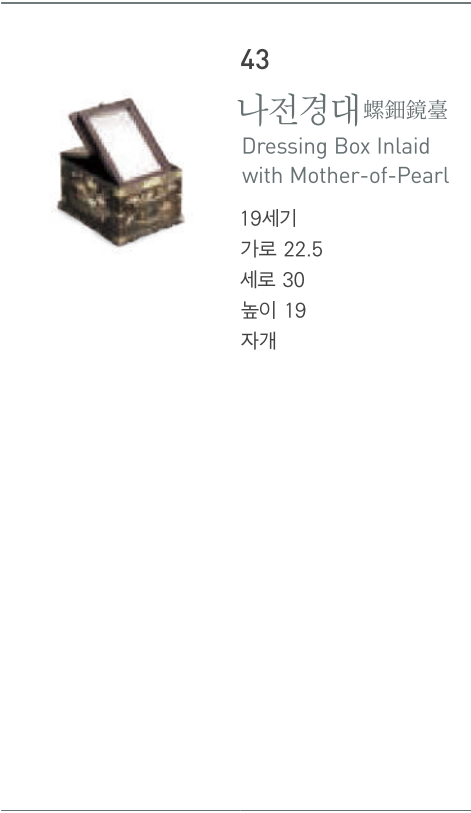
 32 교피함 鯨皮函 Box Covered with Shark Skin 18세기 가로 36.5 세로 17 높이 12.5 교피 소나무	나무로 틀을 제작 후 상어가죽을 씌워 만든 희귀한 함이다. 타출打出 장식이 곁들여진 사각형 앞바탕과 율각한 배목, 죽절 세공한 뺨침대가 정교하고 아름답다. 각 연결부위에는 국화형 감잡이로 장식효과를 더하였다. 뒷면에는 약과형 경첩 2개, 좌우 측판에는 죽절 세공한 원형 들쇠를 부착하고 바닥에는 반구형 다리 4개를 달았다.
 33 필갑 筆匣 Brush Case 19세기 가로 18 세로 12 높이 5.5 은행나무	붓을 보관하던 필갑으로 목갑木匣에 자물쇠와 경첩이 달린 형태이다. 뚜껑은 통판이며 밀면은 사각 측널 안쪽으로 끼워지는 형태로 뒤틀림방지와 장식적인 의도를 알 수 있다. 측널은 턱짜임에 국수형 감잡이로 보강하였다. 보상화형으로 장식한 거북형 불박이 자물쇠와 여의두형 경첩, 국수형 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작지만 품격을 갖추었다.
 34 비녀갑 簪匣 Hairpin Case 20세기 가로 13 세로 43.5 높이 8.5 오동나무	측면에 서랍을 넣는 구조의 장식이 화려한 비녀갑이다. 연귀짜임 후 고추잎형 감잡이로 보강하고 화형 귀장식을 붙였다. 서랍 전면에는 화형바탕 천도형 당김쇠를 붙이고 사각형 앞바탕에 광두정을 붙였다.
 35 목갑 木匣 Box 19세기 가로 16.5 세로 16.5 높이 8 오동나무	측널은 연귀짜임, 밀판은 맞짜임 후 대못으로 보강한 목갑이다. 덮개 안쪽은 2단으로 깎아내어 덮개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였다. 덮개와 측면에는 왕유(唐)의 시 전원락田園樂 단아한 글씨로 음각하였고 덮개 안쪽에는 연꽃을 음각하고 채색한 흔치 않은 목갑이다. 田園樂 桃紅復含宿雨 柳綠更帶朝烟 花落家僮未掃 鳥啼山客猶眠 도홍부합숙우 유록갱대조연 화락가동미소 조제산객유면 복사꽃 붉더니 간밤의 비 머금었고 버들은 초록빛에 아침 안개 둘렀네 꽃 지는데 마당쇠는 쓸 줄 모르고 새 울어도 길손은 여태 꿈속이네

 36 퇴침 退枕 Wooden Pillow 19세기 가로 17 세로 12 높이 8 감나무	십장생十長生을 양각으로 새긴 남성용 목침이다. 연귀짜임 구조이며 측면 한쪽에 미단이문을 만들었다. 내부에는 윗면이 여단으로 열리는 사각함의 있는데 여단의 축이 되는 부제는 소실되어 흔적만 남아 있다. 사각함 내부는 보라색 영초단英綢緞으로 배접하였다. 퇴침의 두 면에는 십장생을 먹선으로 그린 뒤 문양의 바깥부분을 파내었다. 한 면은 매화, 괴석, 소나무, 다른 한 면은 구름, 달, 소나무, 불로초, 사슴 한 쌍, 영지 등을 표현하여 정성을 가득 담은 장인의 숨씨가 느껴진다.
 37 나전문진 螺鈿文鎮 Paperweight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초 가로 28.5 세로 5.2 높이 3 자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나전으로 장식한 한쌍의 문진이다. 자개를 주름질과 끊음질 기법으로 장식하였다. 윗면에는 국화화분과 나비, 대나무 화분과 잠자리, 측면에는 매화문과 박쥐문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38 나전소반 螺鈿小盤 Dining Table Inlaid with Mother-of-Pearl 19세기 말 지름 33 높이 22.5 자개 팽나무	나전과 주철, 흑철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12각형 약상이다. 소반의 다리가 호랑이 다리같이 날렵하게 생겼다 하여 호족반虎足盤이라고 부른다. 호족형 다리를 운각雲腳에 장부짜임으로 연결하고 족대를 끼웠다. 상판 테두리는 주철, 안쪽은 흑철 후 나전으로 장식하였다. 아자문亞字紋을 원형으로 두르고 안에는 포도, 소나무, 다람쥐를 주름질과 끊음질, 모조법毛彫法으로 표현하였다.
 39 나전바둑판 螺鈿棋盤 Go Board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초 가로 45 세로 45 높이 30 자개 대모 교피 동사	천판, 몸통, 족부로 구성된 바둑판이다. 천판은 꼬인 동사로 중횡縱橫 선을 나타내고 대모玳瑁와 교피鯨皮를 번갈아 배치하였다. 가장자리는 타찰법打擦法으로 운문雲紋을 표현하고 꼬인 동사 2줄로 테두리를 장식하였다. 측면은 여의주를 놓고 용과 봉황이 마주보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용의 얼굴, 몸통, 발, 여의주, 봉황의 깃털, 날개 부분은 타찰법打擦法으로 하고, 용의 지느러미, 봉황의 얼굴, 날개 끝은 대모, 봉황의 몸통은 교피로 표현하여 입체감을 살렸다. 용의 몸통 테두리와 봉황의 긴 꼬리는 꼬인 동사로 표현하고 용의 수염과 여백에 구름을 단선으로 표현하여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용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보여 진다. 풍혈이 아름다운 족부는 몸통보다 조금 크게 만들었고 각 면에 대모와 교피로 원문을 각 4개씩 만들어 안정감이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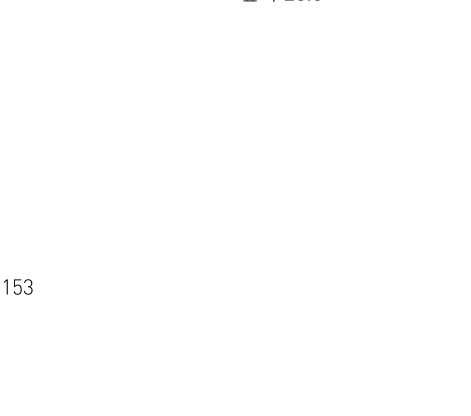
	40 나전함螺鈿函 Box Inlaid with Mother-of-Pearl 19세기 말 가로 45 세로 11 높이 13.5 자개
	십장생문十長生紋이 장식된 단아한 나전함이다. 각 면은 꿇음질로 사각형 테두리를 두른 뒤 그 안으로 다양한 문양을 배치하였다. 천판에는 수자문壽字紋을 중심으로 쌍학과 복숭아가 대칭을 이룬다. 전면에도 좌우로 십장생을, 측면에는 화충華蟲을 표현하였다. 뒷면에는 사각형 테두리 없이 주름질로 화문花紋을 표현하였다. 화형 광두정이 달린 약과형 은혈자물쇠에 약과형 경첩을 달고 각 짜임마다 국수형 감잡이로 보강하였다. 밑면에는 반구형 다리를 달았다. 뚜껑을 열면 내부에 상자가 하나 있고, 안쪽으로 한 겹 덧댄 측판에 상자가 걸리도록 제작하였다. 십장생문과 쌍학 복숭아무늬는 모두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조선 후기에 유행하였다.

	41 나전의상상자 螺鈿衣裳箱子 Clothes Box Inlaid with Mother-of-Pearl 19세기 가로 70 세로 40 높이 19 자개 동사
	예복禮服이나 관복官服을 넣었던 상자를 나전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뚜껑의 어깨받이가 낮은 상자형태로 조선시대 중기에 유행했던 나전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양식을 보여준다. 타찰법打擦法으로 모란넝쿨무늬를 가득 채우고 테두리에 별을 뜻하는 원무늬를 나란히 배열하여 장식하고 상자의 모서리나 구획의 분할, 넝쿨 줄기 등을 꼬인 동사銅絲로 표현하였다. 뚜껑을 열면 뚜껑받이가 있고 내부는 한지로 배접하였다.

	42 나전함螺鈿函 Box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초 가로 49 세로 24.4 높이 28.8 자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장식한 화려한 나전함이다. 천판은 수壽자를 중심으로 박쥐와 모란, 보문寶紋을 대칭으로 배치하고 외곽에 소화문小花紋으로 테두리를 둘렀다. 전면에는 모조법毛彫法으로 섬세하게 화조문花鳥紋을 좌우에 넣고 소화문으로 사각형 테두리를 두르고 화조문 사이에 뇌문雷紋으로 구분하였다. 측면에는 아자문亞字紋으로 사각형 테두리를 두르고 대나무와 초충草蟲 나비문을 넣었다. 뒷면에는 꿇음질과 모조법으로 소나무와 나귀를 탄 선비와 시동을 시문하였다. 함 전면에는 원형 앞바탕에 물고기형자물쇠, 약과형 경첩과 쌍원 감잡이를 부착하였다.

	43 나전경대螺鈿鏡臺 Dressing Box Inlaid with Mother-of-Pearl 19세기 가로 22.5 세로 30 높이 19 자개
	경대는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경사지게 만든 거울이 달려 있는 가구이다. 하단에 서랍이 있어 빗이나 소도구 등 화장구를 넣을 수 있다. 작고 가벼워서 방바닥이나 문갑 위에 올려놓거나 장소를 옮겨 다닐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놓아두기 편리한 구조이다. 여성의 대표적인 혼수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색채와 장식이 화려하다. 나뭇결이 아름다운 목재를 사용하거나 칠공예, 자개, 화각, 대모 등으로 장식하고 장식도 화려하고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였다. 남자들도 상투를 틀거나 의관을 바로 잡을 때 경대를 사용하였는데 여성의 것에 비해 소형이며 소박하다. 높이가 다른 2단 서랍이 있는 화려한 나전경대이다. 주름질 기법으로 천판에는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쌍학, 복숭아 무늬, 가장자리 아자문을, 앞면에는 패랭이꽃과 난초, 나비, 서랍 가장자리에는 귀갑문과 소화문을 배치하였다. 양쪽 옆면에는 강가의 모란과 나비, 뒷면에는 대나무를 간결하게 배치하였다. 마대형 다리의 앞면과 양 옆면에도 소화문을 배치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사각형 은혈자물쇠와 약과형 경첩, 약과형 감잡이를 부착하고 다리에도 사각 감잡이를 하였다. 2단 서랍에는 원형바탕 활형 들쇠를 달아 균형미가 돋보인다.

	44 나전경대螺鈿鏡臺 Dressing Box Inlaid with Mother-of-Pearl 19세기 말 가로 22.5 세로 29.5 높이 23 자개
	2단 서랍이 있는 나전경대이다. 천판, 측면, 앞면, 뒷면에 꿇음질 기법으로 전체에 귀갑문龜甲紋을 두르고 천판에는 귀갑문 가장자리에 아자문亞字紋을 둘렀다. 사각형은 혈자물쇠와 약과형 경첩, 약과형 감잡이를 부착하고 서랍에는 ㄷ자형 들쇠를 부착하여 견실함과 장식성을 확보하였다.

	45 주칠경대朱漆鏡臺 Lacquered Dressing Box 20세기 초 가로 20.5 세로 20 높이 26.5
	2단 서랍이 있는 주칠경대이다. 측면은 각재 사이에 판재를 끼워 넣은 구조로 판재는 주칠, 각재는 옷칠을 하여 색의 대비가 아름답다. 각재와 거울 외곽에는 2줄의 쇠시리를 주었다. 뚜껑은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고 크기가 큰 약과형 경첩을 4개 부착하였다. 밑면에 다리 4개를 붙이고, 사각형 은혈자물쇠를 달고 서랍 앞면에는 활형 들쇠를 각각 부착하였다.

 46 주칠상자朱漆箱子 Lacquered Box 20세기 초 가로 31.5 세로 22 높이 9	단아한 크기의 주칠상자이다. 주칠함의 각 면 가장자리를 깎아내어 테두리 장식을 하고 모서리에 흑칠을 하여 주칠과 흑칠의 대비로 변화를 주었다. 상자를 열면 뚜껑받이가 있고 내부에도 흑칠을 하였다.
--	--

 47 주칠빗집朱漆櫛匣 Lacquered Comb Box 19세기 말~20세기 초 가로 19.5 세로 30 높이 20	빗집은 머리 손질에 필요한 빗, 빗술, 빗치개 등을 넣어두는 여성용 화장구이다. 경대와 겉모양이 거의 같지만 거울이 없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경대와 함께 사용한다. 뚜껑아래 내부공간과 하단에 서랍 2개로 구성된 빗집이다. 주칠을 하고 다양한 모양의 장식으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만초와 화문을 새기고 여의주문을 투각한 섬세한 불로초 형 앞바탕을 넓게 부착하고 하단의 서랍 전면에도 2개의 서랍에 걸쳐 박쥐문을 새긴 보상화형 장식을 부착하였다. 앞바탕에는 박쥐형 불박이자물쇠가 달려있고 뒷면에는 약과형 경첩, 서랍에는 박쥐형 들쇠를 부착하였다. 상판과 앞면에는 나비형 감잡이와 고추잎형 감잡이를 부착하고 족통에도 고추잎형 감잡이를 부착하는 등 최대한 멋을 내었다. 박쥐형 풍혈이 있는 마대형 다리가 안정적이다.
---	--

 48 주칠함朱漆函 Lacquered Box 20세기 초 가로 33 세로 20.5 높이 19	붉은 색과 검은 색의 대비가 아름다운 특이한 주칠함이다. 만초를 음각으로 새긴 원형 앞바탕과 약과형 경첩을 부착하였다. 윗면 모서리 처리방식이 일본 목가구 기법과 유사하다. 뚜껑을 열면 뚜껑받이가 있고 내부는 종이로 배접하였다. 먹과 금분으로 뚜껑윗면에는 기러기 한 쌍과 화초를, 앞면에는 화초와 나비 한 쌍을 그려 넣었다. 밑면에는 일자형으로 길게 족대를 대었다.
---	---

 49 제등提燈 Lantern 19세기 초 가로 15.5 세로 15 높이 24 종이 대나무	한지를 제작하는 마무리 가공 처리방법 중 도침搗砑 처리가 있다. 이는 여러 겹의 종이를 포개어 놓은 다음 여러 번 두들기거나 무거운 돌로 눌러둔 뒤 바람을 쐬어 말리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종이 면이 매끄럽게 정리되고 치밀해져서 강도가 세어진다. 이 유물은 도침한 종이로 직육면체 골조와 아자형亞字形 창살을 만들고 한지를 바른 아주 귀한 초롱이다. 손잡이는 대나무로 제작하였다. 한 면은 작은 고리가 달려 있어 창을 위로 들어 올려 여단을 수 있고 초를 넣고 빼기가 편리하다. 창 위, 아래에 만자문卍字紋 틀과 맨 윗단에 산문山紋이 정교하고 매력적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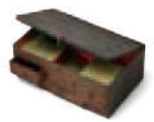
 50 제등提燈 Lantern 19세기 가로 34.5 세로 34.5 높이 26.5 피나무 대나무	등잔을 안에 넣고 불을 밝히던 제등으로 등롱이라고도 한다. 사각면의 몸체에 아래는 각재를 격자로 끼워 중간에 사각형 받침을 얹었고, 위에는 네 귀의 안쪽으로 덧댄 각목에 대나무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다. 한 면이 여단으로 열리도록 작은 고리가 달려 있어 등을 넣고 뺄 수 있도록 하였다.
---	---

 51 촛대燭臺 Candlestick 19세기 거북받침 폭 9 거북받침 길이 13 총높이 51 소나무	초는 밀랍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 주로 상류층에서 사용하였다. 이 유물은 파초형 화선火扇이 달려있고 율각粟刻이 있는 기둥과 거북형 받침이 있는 촛대이다. 화선은 불후리라고도 하며, 부채 판처럼 판을 만들어 촛불의 한 면을 막아 반사되는 빛으로 더욱 밝게 하고 바람이 불어 흔들리거나 꺼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	--

 52 빗장 Latch 빗장 길이 23 거북장식 길이 11	큰대문보다는 작은 문이나 공간 등에 달았던 빗장으로 추정된다. 두 마리의 거북 조각이 소박하다.
---	--

 53 촛대燭臺 Candlestick 좌 받침너비 21.5 받침길이 29 총높이 42 우 받침너비 21.5 받침길이 29 총높이 42	상단의 초받침과 기둥 그리고 받침이 일체형인 촛대이다. 화려한 색채와 연화문이 양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받침은 한 쌍의 거북이 형태로 보이며 청홍색의 대비로 변화를 주었다. 절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

 54 소라패 표주박 螺貝瓢子 Dipper with Turban Shell 19세기 가로 19 세로 10.5 높이 6 소라패 나무 교피	얇고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소라패를 잘라 만든 표주박이다. 나무로 집을 만들어 파손 위험을 대비하였는데 나무집은 원형경첩을 달고 잠금고리를 달았으며 겉을 상어가죽으로 감쌌다.
 55 표주박瓢子 Gourd-shaped Dippers 19~20세기 나무 종이 야자열매	표주박은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형태로 물이나 술을 마실 때 사용한 휴대용 그릇이다. 주로 나무를 깎아 만들고 악귀를 쫓는다는 복숭아 모양으로 만들었다. 바깥쪽은 꽃을 조각하여 장식하고 옷칠이나 주칠을 하여 방수의 기능을 갖추었다. 드물게 높은 신분의 사람을 위해 용, 거북을 장식한 경우도 있다. 나무 이외에도 종이를 찰싹푼과 섞어 이겨서 만들기도 하고 야자열매를 자르고 꼭지를 단 표주박도 있다. 대체로 소지하기 편하도록 금속고리를 달았다. 거북모양 표주박(p. 121 상단 오른쪽)은 나무의 형태에 따라 거북등의 한면을 구불구불한 선으로 두고 표면에 거북등 껍질 문양을 음각으로 파서 섬세한 선으로 표현하여 실용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었다. 금속 고리를 거북의 머리로 표현한 재치가 아름답다. 용형 표주박(p. 121 상단 왼쪽)은 용이 물을 먹는 모습을 형상화하였고 박의 형태를 불규칙한 물결무늬로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표면에는 꽃과 잎사귀, 사슴, 연꽃 잎의 테두리를 음각으로 처리하여 독특한 아름다움을 준다. 울퉁불퉁한 표주박(p. 121 하단)은 나무뿌리를 이용하여 표면을 그대로 살려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56 서류함書類函 Document Box 18세기 가로 40 세로 27.5 높이 9 종이 나무	나무로 틀을 만들고 종이를 장식한 서류함으로 연륜의 깊이가 느껴진다. 상판에 경첩을 달아 윗면 2/3가 열리는 구조이다. 각재 위에 종이를 꼬아 연화만초, 국화만초를 돈을 무늬로 표현하고 위에 도침한 종이를 바른 지장함이다. 약과형 앞바탕에 울각한 배묵과 초엽형 경첩, 국화형 감잡이, 화형 사각 귀싸개를 부착하였다.

 57 팔각지장함 八角紙裝函 Paper-coated Box 20세기 너비 31.5 높이 19.2 종이 나무	타출打出장식이 돋보이는 원형앞바탕 아래에 활형 들쇠가 달려있다. 측널과 밑판은 쇠못으로 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뚜껑과 몸체의 색상을 붉은 색과 검은 색의 한지를 엇갈려 붙이고 모서리도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교차하도록 하여 장식성을 높였다. 윗면 중앙에 작은 팔각을 만들고 삼각형 공간에 화문을, 넓은 십자의 중앙에 태극문양을 표현한 귀한 지장함이다.
 58 지장함紙張函 Paper-coated Box 19세기 말~20세기 초 가로 14 세로 10.5 높이 11 종이 나무	다양한 색의 배합이 아름다운 지장함이다. 내부에도 종이를 배접하여 짜임은 알 수 없다. 뚜껑 안쪽으로 뚜껑받이를 대었다. 밑면에는 일자형 족대가 대어져 있다. 원형 앞바탕, 원형경첩을 붙였고 아쉽게도 뺨침대는 일부 파손되었다.
 59 지함紙函 Paper Box 가로 34 세로 21 높이 13.5 종이	종이로 만든 소박한 느낌의 반진고리이다. 전면에 4개의 서랍이 있고 뚜껑을 열면 안으로 수납공간이 있는 구조이다. 앞바탕 없이 단순한 고리에 자물쇠를 거는 형식이다. 서랍에는 화형바탕 당김쇠를 부착하였다. 윗면에는 수자문壽字紋, 뒷면에는 만자문卍字紋 붙이고 검은 종이를 덧붙이고, 앞면에는 화문을 투각한 종이를 붙여 장식하였다. 종이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귀하게 사용했던 솜씨와 정성이 따뜻하게 전해진다.
 60 색실상자 Thread Box 가로 30.7 세로 19 높이 16.7 종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침선과 자수를 위한 색실 및 재봉도구를 수납하는 지함이다. 도침한 종이를 틀을 만들고 전면, 윗판, 측면에 종이를 여러 겹 덧대어 만자문卍字紋을 두 개씩 돈을무늬로 시문 후 검은색 한지로 배접하였다. 전면에는 약과형 앞바탕이 있고 뚜껑은 덮개식 구조로 앞뒤로 펼쳐진다. 상단은 상자형 수납공간, 하단은 3개의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은 좌우로 2군데 색실을 보관하는 납작한 수납공간이 있고 하부에도 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덮개의 안쪽 면에 만자문卍字紋, 화문花紋이 찍혀진 종이를 덧발랐다. 서랍과 수납공간에 빨강, 노랑, 연두, 보라색으로 분할 처리하여 미적인 감각이 돋보인다.



61

나전문갑

螺鈿文匣

Stationery Chest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말
가로 82.5
세로 34
높이 38
자개
4개 1조

해방 이후에는 나전의 재료인 전복이 귀해서 전복껍질을 사러 다니는 상인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호주 등지에서 전복이 수입되어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상류층에서 나전가구가 크게 유행하였다.

수입된 전복은 크기도 크고 분홍빛이 강하여 화려한 색감이 특징이다. 여기에 소개된 가구는 1980년대에 일습으로 제작된 것이다.



62

나전경대

螺鈿鏡臺

Dressing Box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말
가로 19
세로 35.5
높이 25.5
자개



64

나전이층농

螺鈿二層籠

Clothes Chest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말
가로 61
세로 38
높이 89
자개
2개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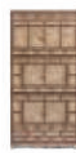
63

나전이층농

螺鈿二層籠

Clothes Chest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말
가로 43.5
세로 36
높이 74
자개
2개 1조



65

나전삼층농

螺鈿三層籠

Clothes Chest Inlaid with Mother-of-Pearl

20세기 말
가로 100
세로 52
높이 200
자개

전시장 전경





로비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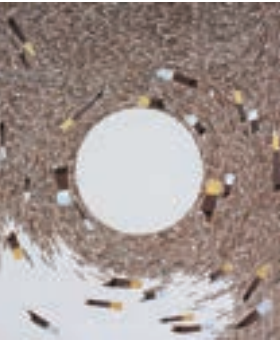


2019년 특별기획전 <나무, 울곧음·깊음·아름다움>에 도움을 주신 국립민속박물관, 기증자 설영자 동문(59회)과 목가구를 대여해 주신 개인 소장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성호, 이정인, 채림, 금다운, 송예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가 소개

회화

이정인 LEE JEOUNG IN



1994 서울시립대학교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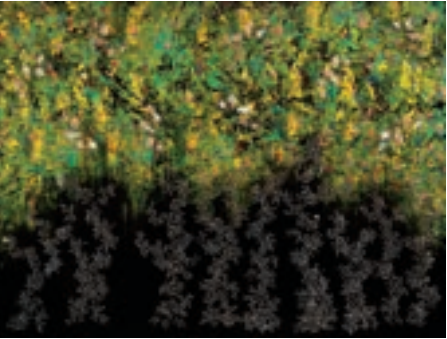
수상경력

- 2015 미술대상 수상 - 한국문화예술신문사 주관
- 2015 대한민국문화예술대회 서양화부문 최우수상 수상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개인전

- 2019 아트셀시 초대전(청담동)
- 2018 갤러리두 초대전(청담동)
- 2018 조형아트서울-코엑스 개인전 (PLAS 오픈콘테스트 대상)
- 2018 수호갤러리 초대전(분당)
- 2014 금보성 아트센터 초대전(평창동)

채림 CHAE RIMM



1989 이화여자대학 대학원 졸업

수상경력

- 2018 NEW YORK ART EXPO DIRECTORS' AWARD
- 2018 이탈리아 피렌체 인터내셔널 레오나르도 다 빈치 어워드
- 2017 NEW YORK ART EXPO SOLO AWARD WINNER
- 2015 프랑스 LOUVRE 국제전통문화유산박람회 - 국제 앙드르말로협회 Eugène Fontenay상

개인전

- 2018 빛으로의 여정, 숲으로의 여정,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 2018 Nature Meets Nature, Art Meets Art - 숲의 사색, 학교재갤러리, 서울
- 2017 숲의 노래,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 2017 숲의 노래, ABLE FINE ART GALLERY, 뉴욕
- 2016 공명, BDMC 갤러리, 파리

공예

김성호(건칠명인) KIM SEONGHO



- 1955 박용주 나전칠기공방 입문
- 수상경력
- 2018 남원 전국옷칠목공예대전 은상
- 2017 원주 한국옷칠공예대전 일사특별상 전주 전통공예전국대전 동상
- 2016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특선
- 단체전
- 2014 한국 나전칠기 근현대작가 33인전

금다운 KEUM DA WOON



- 20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
- 20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전시경력
- 2017 투 에토스(Two Ethos) ~2018 이탈리아 & 한국 전시
- 2017 섬유 15年

송예진 SONG YAEJIN



- 20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
- 전시경력
- 2018 대한민국 미추홀 전통문화예술작품 공모전 최우수상 제10회 국제전통예술대전 특선
- 2016 제21회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특선 제6회 대한황실공예대전 특선

나무

아름다움
깊음
울곧음

전시장소	경기여고 경운박물관(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內)
주최	경운회
전시주관	관장 장경수
책임기획	부관장 박경자
기획진행	학예사 김진아 이경희 김종민 학예연구원 박상진
도록편집	배방훈, 이계호, 호원숙, 김혜정
진행	학예연구원 설영자 손창옥 김귀란 전명애 김용정 임연옥 배현령 한소영 김명희 이영희 전경숙 오현옥 정순은 강영서 김현순 이혜원 공희숙 이경순 이숙명 최의려 최은순 이미영 이정희 김혜진 지미영 민승욱
자문	김삼대자
사진	서현강
도록 디자인·제작	디자인문화 예병익, 정진모, 이남희
발행인	장경수
발행처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06324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9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內 경운박물관 Tel. 02-3463-1336 Fax 02-3463-1331 www. kwmuseum.org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은 경운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 비매품



본 도록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